

## <선녀와 나무꾼> A Fairy and a Woodcutter



옛날에 금강산 아래에 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woodcutter** under Mount Kumgang.

One day, he found a deer while he was cutting the trees upon the mountain.

사슴은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줬어요. 잠시 후 숨어 있던 사슴이 다가와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원 한 가지를 말하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The deer was being **chased** by a **hunter**. The woodcutter **hid** the deer, the hidden deer approached the woodcutter saying "Thank you very much. Please tell me one of your **wishes**. I will make it come true."

나무꾼이 말했어요.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He said, "I want to have a wife.

사슴이 말했어요. "그럼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가세요.

" The deer said, "Then go to the pond where the fairies take their baths.

그리고 한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세요. 그 선녀는 날개옷이 없어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세요.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 절대로 옷을 돌려주면 안 돼요.

" Steal a wing dress of one **fairy**. That fairy will not be able to fly back to heaven without her wing dress, and she will become your wife. However, You must never return her dress until you have three children."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선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선녀들이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As the deer had said, the woodcutter went to the pond where the fairies take their baths.

He took away a dress. After a while, the fairies finished bathing and put on their winged dresses to ascend to heaven. But one fairy failed to ascend to the heaven, as she couldn't find her wing dress.

나무꾼은 옷 한 벌을 감췄어요. 얼마 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날개옷을 갈아입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한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날개옷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됐어요.

After some time, she became the wife of the woodcutter.

세월이 흘러 선녀는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됐어요. 아기를 둘이나 낳았지만 선녀는 고향인 하늘나라가 그리웠어요.

The days went by and the fairy had babies and became a mother. She had two children, but she still **missed** her home in the heaven.

나무꾼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옷을 감춰요." 선녀는 말했어요.

"그랬군요. 한 번만 그 옷을 입게 해주세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옷을 줬어요.

The woodcutter was very sorry to see that, and he told his wife saying, "I hid your dress." His wife then said, "Is that true? Please let me try to put on my dress only once." The woodcutter gave her the dress.

선녀는 아기 둘을 양팔에 안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버렸어요.

And she held her two children in her arms and ascended to the heaven.

나무꾼은 선녀에게 날개옷을 보여준 걸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나무꾼이 시름에 잠겨 있을 때 사슴이 다가와 말했어요.

The woodcutter **regretted** that he had showed her winged dress, but it was too late. When he was casting about in despair, the deer came to him and said,



"보름날 밤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걸 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There will be a well-**bucket** coming from heaven if you go to the pond at night on the 15th day. You may go up to heaven riding in that well-bucket."



밝은 달이 떠오르자 정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그것을 타고 하늘로 갔어요. "여보! 애들아!"

When the bright moon came up, a well-bucket **indeed** came down from the heaven. The woodcutter rode on the bucket and went up into heaven. "Dear! My children!"

하늘나라에서 나무꾼과 선녀는 함께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그러나 나무꾼은 어머니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는 말했어요.

He and the fairy then led a happy life in heaven together. But he could not only enjoy being there because of his mother. Then his wife said,

"그럼 하늘나라 말을 타고 어머님께 갔다 오세요. 하지만 절대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Alright, I think you may go to see your mother on a Heaven horse. But you must never get off the horse under any circumstances "

나무꾼은 말을 타고 땅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호박죽 그릇을 건넸어요.

He came down the ground to see his mother while riding on a horse. His mother gave him a dish of hot pumpkin cereal.

그런데 아들은 뜨거운 죽을 먹다 그만 말의 등에 죽을 쏟고 말았어요.

However, the son spilt the hot food on the back of the horse while taking it.

말이 깜짝 놀라 발버둥치자 나무꾼은 말에서 떨어졌어요.

And as the horse was **frightened** and bucked under him, he fell down from the horse to the ground.

나무꾼은 소리쳤어요. "안 돼, 나도 태우고 가야 돼." 그러나 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날아가버렸어요.

He cried out, "No, I have to go with you." But the horse flew away without looking back.

그 뒤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았어요.

Thereafter, the woodcutter lived alone longing for this wife and children.

얼마 뒤 나무꾼은 죽어서 수탉이 됐어요.

After a while, he died and became a **rooster**.





그래서 지금도 수탉은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슬피 운답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roosters even now still go up onto the roof and cry sadly looking up the sky.